



강원지역

소나무

반출 소동을 겪은 마을 수호목의 소나무

	지정번호	강원-양양-22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지정년도	2011		상운리 263
	관리기관	양양		38° 02' 36.29" N
	수령	262년		128° 40' 52.33" E
	수고	17m		
	흉고둘레	4.5m		

바닷가 인근의 마을 길이면서 농로의 3갈래 지점에 있는 보호수(강원-양양-22) 소나무는 낮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야산에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자라고 있다. 풍치목이다. 보호수인 소나무 바로 곁에 또 다른 고목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262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 둘레는 45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1.5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위로 향하고 있으며, 한 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다시 2갈래로 갈라진 후 여러 가지를 퍼지게 하여 잎을 달고 있다. 곧은 줄기는 군데 군데에서 고사한 가지 줄기를 자른 양상이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신목 및 반출 일화 등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으로 여겨 매년 이 소나무 아래에서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왔다. 일부 사람들은 어떠한 사연도 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건너온 소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숲에 있는 소나무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 이야깃거리가 된 바 있다. 2013년의 일이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소나무가 반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결국 동네의 소나무 소유자는 상운리의 수백 년생 소나무 20여 그루를 캐내기 위한 굴취 신청서를 군청에 접수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렇게 소나무 반출 소동이 마무리되었지만 상운리에서 소나무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이대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마을의 소나무 숲 일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소나무 반출 소동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주민들은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앞으로도 소나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을 숲에서 소나무가 외지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손상을 입힌 적이 없다. 소나무 숲이 손상을 입은 것은 지금까지 2번에 불과하다. 6·25한 국전쟁과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인데, 이 때에도 주민들이 소나무 숲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마을의 '소나무 숲'은 그 자체가 명품이다. 소나무들 중에는 나무나이가 1,000년인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운리 소나무는 2010년에 양양군 소나무명품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